

담양군, 지역 특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정책 지속화

의료돌봄 성과대회 보건복지부 표창 향촌돌봄 다양한 노인 복지 성과 인정 관내 돌봄 대상자 4525명 맞춤형 서비스 지킴이단 활용 상시 돌봄 체계 구축

담양군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4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향촌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돌봄 대상자 4525명에게 방문해 각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협력 부서와 수행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했다.

전담 부서를 새로 설치하고 읍면 보건지소에 보건 인력을 추가 배치해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최근 담양군이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담양군 제공

아울러 노인 통합 돌봄 모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재활과 돌봄 특화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향 사랑기금을 활용한 병원 동행과 퇴원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어르신 지킴이단, 마을 안전지킴이단 등을 통한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기동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도 조성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노인 돌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 돌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지역아동센터 농촌체험 활동 농협광주본부, 농촌 이해 목적

농협광주본부는 지난 13일 광산구 옥곡동에 위치한 한 체험농장에서 광산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농업과 농촌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국민과 같이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호 본부장, 김시라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광산구청 관계자를 비롯한 광산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농촌체험활동은 도시 어린이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쌀을 활용한 '구움찰떡 만들기'를 통해 쌀 활용과 소비 촉진의 중요성을 경험했으며 토마토농장을 살펴보고는 먹거리의 생산과정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호 본부장은 "이번 활동이 도시 어린이에게 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화순열린도서관, 24일부터 접수

화순열린도서관은 2025년도 제1기 문화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순열린도서관 2025년 1기 문화프로그램은 △마음을 위로하는 책(일반 대상, 2개 강좌) △그림책 남남 요리(유아 대상, 2개 강좌) △미술로 놀자(유아 대상)이며, 6개 강좌에서 총 65명을 모집한다.

1기 문화프로그램은 2025년 1월7일부터 3월22일까지 총 10주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5년 1월3일까지이며 화순열린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

화순열린도서관 제1기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문의 사항은 화순군청 군민종합문화센터팀(061-379-39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삼영 화순군 문화예술과장은 "아이들이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해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책과 함께하는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수도요금 전자 고지서 일부 전환 장성군, 취약·고령층 지로 유지

담양군 물순환사업소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수도 요금 고지서 서비스인 '과세 알림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세 알림톡은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지로 요금 고지서 방식과 달리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과세 알림톡을 신청한 가구는 현재까지 1506가구로, 담양군은 2025년 1월까지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기존과 같이 지로 고지서를 유지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전자 고지서로의 전환이 군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담양군, 1만1340건

장성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 1340건에 1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륜차(125cc 초과)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과 위택스 이용,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사전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둔 주민은 납부기한 전 통장잔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함평 군민들이 월야보건지소에서 스포츠 테이핑 프로그램 체험을 하고 있다. 함평군에서는 지난달까지 해보면, 나산면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프로그램 호응

함평군이 올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등 동부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운동, 영양,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9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주민 관심을 끈 스포츠 테이핑 교실과 한의약 양생건강교실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수는 총 2905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주민들은 규칙적인 운동 실천 등 건강 생활실천 행동 변화를 보였으며, 노인 우울척도(SGDS-K) 지수에 따른 우울증이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금연·영양 맞춤형 상담실 운영도 함께 운영해 지역 주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

실효 수행했다.

함평군은 내년에도 주민 건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신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증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화섭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이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장성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내년 2월20일까지

장성군이 '2026~2028년 공급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2025년 2월20일까지 받는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과 석회질(패화석)비

료 토양개량제를 지역농업인에게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1주기 연차별로 시행하며 장성읍, 진원·남·동화면은 2026년, 삼서·삼계·황룡·서삼면 2027년, 북일·북이·북하면은 2028년에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된

농업경영체다.

공급신청서에 농지 정보, 비료 종류 등을 적어 농지소재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농지를 비옥하게 관리하고 농가 경영부담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화한 뒤 꼭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